

서울대학교 지능형 에코사이언스 특성화대학원(GS-IES) 언론보도자료

보도일	즉시		
배포일	2022. 10. 12.(수)	사업책임자	강준석 교수
담당연구실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담당자	송예민 교육조교

서울대 지능형 에코사이언스 특성화대학원(GS-IES) 개원식

- 서울대학교 지능형 에코사이언스 특성화대학원은 지난 10월 5일(수) 개원식을 개최했다.

- 지난 5일(수)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진행된 개원식에는 지능형 에코사이언스 특성화대학원 사업책임자인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강준석 교수, 농업생명과학대학 장판식 학장, 농업생명과학대학 집행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조주현 실장, SK에코플랜트 김경호 고문, JH Solution 이정훈 대표와 삼성물산 정은영 그룹장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 개원식에는 장판식 학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우원 이사의 축사(조주현 실장 대독)와 더불어 권주용 지휘자가 이끄는 서울오케스트라 금관 5중주 축하공연, 50년 전통의 농업생명과학대학 밴드 샌드페블즈 출신인 이군택 교수와 허진희 교수의 깜짝공연 및 2022 에코사이언스 대상 시상 등이 진행됐다.

- 지능형 에코사이언스 특성화대학원 사업책임자인 강준석 교수는 “지능형 에코사이언스 대학원의 공식적인 시작을 개원식을 통해 알리게 되어 기쁘다”라며 “환경서비스 분야 인력 양성은 그린뉴딜 사업 및 탄소중립 2050과 같은 국가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중심형인 서울대학교가 현장중심형대학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개원식 소회를 밝혔다.

- 농업생명과학대학 장판식 학장은 축사에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지능형 에코사이언스 특성화대학원 사업은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지난 110여 년간의 성장과 성과를 발판으로 창발적이고 융복합적인 인재 육성에 매진하는 모습과 일치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본 사업을 통해 서울대학교가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과감하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인류의 미래를 주도하는 환경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비전, 도전, 그리고 지식 플랫폼을 제시할 것이다” 라며 특성화대학원의 개원을 축하했다.

□ 서울대학교 지능형 에코사이언스 특성화대학원 지난 3월 시작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원하는 교육연구사업으로 SK임업, 대일엔지니어링, SK텔레콤, HLD 및 일본 토호쿠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산학협력프로젝트 ▲산학협력세미나 ▲현장실습 등 환경 서비스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화된 교육커리큘럼을 운용 중이다. 특성화대학원 운영위원회 교수진으로는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이동근 교수, 류영렬 교수, 윤희연 교수, 강준석 교수, 건설환경공학부 최용주 교수,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이군택 센터장,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윤승준 연구교수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외 우수한 50여명의 교육인력과 함께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